

社說

市 환경정책 문제 많다

사람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다. 최근 경제개발과 더불어 자주 발생하는 분출사건 중의 하나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와 개인 재산권 보호간의 충돌 현상이다.

최근 영광아스콘 허가와 관련해 주민들과 허가업체, 포천시 당국의 환경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과 허가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포천시 동교동 558-27번지 일대는 지난 92년에 취락(공업)지구로 지정했다. 취락(공업)지구로 지정할 당시에도 과연 제대로 현지조사를 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이 당시 인근 지역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밝혔지만, 취락(공업)지구로 지정된 거리에서 대략 200m 부근에 집단으로 이주한 상계마을 160여세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취락(공업)지구로 지정한 지 13여년이 흐른 현재는 이 지역 주변에는 많은 주택이 입주한 것을 비롯해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취락(공업)지구로 지정된 후 많은 변화가 있을 때는 도시계획을 수정하거나 혹은 보완을 해야 하는데, 포천시는 아무런 대책이나 대안을 세우지 못했다.

이 지역 일대를 취락(공업)지구로 지정할 당시와 달리 반경 500m 이내에는 동교2,3,4동 주민 700여 세대, 송우리 200여 세대, 공장 등이 입주해 있다. 게다가 최근 반경 1km내에는 5천여 세대가 입주한 송우주공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신봉, 태봉초등학교 등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 도심권역으로 변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천시 당국에서는 취락(공업)지구에 대한 보완이나 수정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공해배출 1종 업체로 분류된 영광아스콘 측

이 허가를 요청하자 지리적인 위치나 환경오염 등을 고려하지 않고 관련법에 의거해 허가를 승인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공해배출 1종 업체인 아스콘 공장 입주할 경우 타 업체와는 달리 민원발생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환경영향성검토 등을 실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축소했어야 한다. 물론 포천시 관계자가 말한 것처럼 환경관련법에서 환경영향성 검토는 부지면적 1만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평가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공해배출 1종 업체를 허가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것을 관계 공무원은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흔적이 바로 출장복명서 내용이다. 허가신청이 있었고, 관련 공무원이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나갔는데,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주택이나 주민들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던 일인가? 허가를 위한 현장출장이라면 반드시 주변일대의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해 보고 고려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는 분명히 허가과정상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영광아스콘 허가와 관련해 주민들과의 갈등은 결국 포천시 환경정책의 부재에서 기인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영광아스콘 허가 이전에 포천시는 아무리 취락(공업)지구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 혹은 수정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포천시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않아 결국 주민들이나 영광아스콘 측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려해야 할 문제다.

郷土원로초대석 ⑤ …… 前 儒道會 抱川支部 副會長 李晩在



이만재 전 유도회 포천지부 부회장

“농사꾼의 토지는 싸고 내다버리는 땅은 비싸다”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8·15해방이후 20여년 동안 지현리 이장으로서 동네 일을 맡아 온 이만재(82.사진)옹은 현재 화면면 지현리 664번지에서 운악산을 바라보며 급변한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며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신무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농사를 지으며 고향을 지켜온 이옹은 국가의 농지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농지정책의 문제는 농지를 매매할 수 없도록 규제한 점이다. 실제로 이옹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3천여평의 논에는 지난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다. 누구하나 농사를 지으려고 나서서 사람도 없다. 결국 매매하여 좀더 편안하고 살고 싶지만 농지라는 이유로 매매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굳이 팔려고 한다면 농지로 농가에 매매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가격이

맞지 않아 이리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하는데 농촌 출신 국회의원의 수가 적어 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실정에 대해 이옹은 “농사꾼의 토지는 싸고 내다버리는 땅은 비싼 것이 현실이다”고 밝힌다.

6·25 전쟁 당시 이옹은 “예비역장교(방위장교)로서 신북면 신령리에서 북한군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가족들을 모아 놓고 감시를 하고 있었다”며 “다른 지역에서는 가족들을 죽이거나 강제로 팔고 갔으나 신령리에서는 각자 살 길을 찾아 가라며 모두 보내주었다”고 회상한다.

이옹은 1·4후퇴로 대구로 피난 갔다가 경상도 고성에서 중위로 근무하다가 수복이 되자 방위부대가 해체되어 수원으로 올

라왔다가 군인들의 차를 이용해 고향인 화면면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고향에 돌아와서도 운악산에 빨치산이 은거하여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과 애로를 겪기도 했다고 한다.

노인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유교밖에 없다고 강조하는 이옹은 포천향교 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자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가끔 포천에 나가 친목회 사람들을 만나서 일이 주요 일이라고 하는 이옹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좀더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의 아픈 역사를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개인주의적 사고의 팽배와 현실안주적 인생관 등에 경종을 울리는 이옹의 가르침이 포천시민에게 교훈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인터뷰 아스콘 공장반대 대책위원회장 및 관계 공무원

1면에 이어서

아스콘 공장반대 대책위원장

▶영광아스콘 공장허가와 관련해 주민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스콘 공장이 가동될 경우 인근 지역에 미치는 환경오염은 대단히 크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권리는 물론 건강권이 크게 침해되는데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자가하락 등 재산권이 침해 될 것으로 보여 주민의 권리를 지키는 차원에서 아스콘 공장 신설을 반대한다.

▶허가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농로포장공사 혹은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하더라도 주민공청회를 하는데, 환경오염의 종합실태인 아스콘 공장을 허가과정에서 주민설명회 한번 안 했다. 허가 승인 조건상 7m도로확보 후 건

축물을 공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또 비록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사유지 사용 승락을 받지 않고 진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있을 수 없다.

▶허가 승인 전 공무원 출장복명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근거는 무엇인가?

시장은 앞서서 결재하는 사람이다.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서 공장허가 지역 부근 상계마을 160여 세대와 노인정 등을 정확히 보고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허가과정상 가장 잘못된 사항이다.

▶전 동교2동장과 영광아스콘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주장하는데 근거는 무엇인가?

임암리에 전 동교2동장이 이권에 개입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진입로 부지 매매에 관여했고, 557-4번지 건물철단 및 마감공사, 암거시설 및 포장공사를 전 동교2동장이 맡아서 했다. 이권 때문에 주민을 속였다. 전2동

장이 허가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스콘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든지 혹은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협상의 여지는 없다. 공장이 가동되면 주민들은 생존권, 건강권, 재산권을 모두 잃는다. 주민들이 모두 떠나야 할 판이기 때문에 끝까지 허가취소 또는 이전을 요구할 것이다. 행정소송 등 법적인 문제도 함께 제기할 것이다.

▶포천시청 담당 공무원

▶허가 지역일대 취락(공업용)지구 지정된 시기?

대략 92년에 지정되었고 그 상 황은 주민들이 더 잘 안다. 객관적인 개인 생각은 이 일대 지역은 주로 공장들이 입주해 있고, 주변지역에 주택이 입주 등 외형적 변화를 고려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주민들의 건강권 및 재산권 침해 등을 고려해 사전 환경영향성 검토를 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전 환경영향성 검토대상은 부지면적이 1만평 이상이 되어야 대상이 된다.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1종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항이고 경기도가 수리한 사항이며 관련부서와 협의의 마친 사항이다.

▶주민들은 영광아스콘 측이 승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장 부지 공사 및 건축을 공사를 시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4월16일 교량박스 높이가 낮았고 주민신고가 있어 건설과에서 원상회복 및 재시공 명령을 시달렸다. 승인 조건중 도로확보와 더불어 공장부지 공사를 진행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4월18일 공사중지 명령서 이후에는 공장부지 공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발행위인 주택부지 건축조성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관계 공무원 출장복명서상 상계마을 160여 세대와 노인정 등을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틀린다고는 말할 수 없다.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방문한 것을 기준으로 복명 한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인 사실을 반영하지 안 했다면 공무원의 과실이 있고, 원칙적으로 관련부서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설계도면상 교량높이를 1.5m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구거점용 허가를 득 하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할 사항이다. 관련부서에서 서면상 보낸 준서류를 검토했기 때문에 사실여부는 확인해 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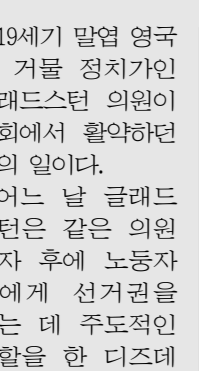
▶향후 대책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주민대로 불만을 제기하고 업주는 업주대로 불만이 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하승환 기자 form65@paran.com

유머정치

“우리 정치권은 너무 살벌하다 삭막하기 까지 하다”



이중희 민주평등지문회의 포천시협의회장

19세기 말엽 영국 의 거물 정치가인 글래드스톤 의원이 국회에서 활약하던 때의 일이다.

어느 날 글래드스톤은 같은 의원이자 후에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디즈데일리 의원을 향해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국회의사당에서 디즈데일리 의원이 여러 의원들에게 설득력 있는 훌륭한 정책 발표를 마친 뒤에 자기 의석으로 가서 앉았는데 느닷없이 글래드스톤 의원이 일어섰다.

그리고 디즈데일리 의원에게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의 행동은 내게 그게 뭐니까? 내가 들은 말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당신은 성병에 걸렸는데 그게 사실이야?”

청청병역 같은 모욕적인 발언에 국회의사당 안은 삼시간에 찬물을 끼얹는 듯 조용해졌다. 너무나 끔찍한 모욕을 당한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해 나올 것인가를 모두들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모욕을 당한 디즈데일리 의원은 싱글벙글 웃고 있다가 미안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입을 열었다.

그의 답변은 이러했다.

“글래드스톤 씨,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당신 애인과 비밀히 하룻밤 자고 나서 그런 병이 걸렸는데, 아마 그 여자가 당신에게 그것을 일러바친 모양이구요.” 그 순간 의사당 안은 폭소가 터져 온통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다.

자기에게 준 모욕에 대해 기발한 말 한마디로 오히려 상대방에게 그 치부를 슬쩍 뒤집어씌우는 재치와 유머는 참으로 천하일품이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지금 어떠한가? 우리나라 같았으면 아마 주먹다짐, 고소, 고발, 여·약한 대처로까지 이어졌을 것이다.

이해찬 총리가 “현재 시·도지사 중 대통령급 없다.”, “순화규 지사는 정치적으로 한참 하수.”, “대선 기획은 국내에서 내가 최고.” 하니 순화규 지사도 맞받아치면서 “그 사람이 이거 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람이 정치는 잘 할지 몰라도 행정이나 경제는 뻥 점 아니냐?” 한다.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이런 점에서 볼 때 정치고수자 아니냐”며 “순화규 지사는 유머와 재치는 찾을 수 없고 살벌한 발언뿐이다.”

“클래드스톤 씨,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당신 애인과 비밀히 하룻밤 자고 나서 그런 병이 걸렸는데, 아마 그 여자가 당신에게 그것을 일러바친 모양이구요.” 그 순간 의사당 안은 폭소가 터져 온통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다.

자기에게 준 모욕에 대해 기발한 말 한마디로 오히려 상대방에게 그 치부를 슬쩍 뒤집어씌우는 재치와 유머는 참으로 천하일품이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지금 어떠한가? 우리나라 같았으면 아마 주먹다짐, 고소, 고발, 여·약한 대처로까지 이어졌을 것이다.

이해찬 총리가 “현재 시·도지사 중 대통령급 없다.”, “순화규 지사는 정치적으로 한참 하수.”, “대선 기획은 국내에서 내가 최고.” 하니 순화규 지사도 맞받아치면서 “그 사람이 이거 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람이 정치는 잘 할지 몰라도 행정이나 경제는 뻥 점 아니냐?” 한다.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이런 점에서 볼 때 정치고수자 아니냐”며 “순화규 지사는 유머와 재치는 찾을 수 없고 살벌한 발언뿐이다.”

“막강한 책임감 갖고 노력하자” 다짐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포천동지부 간담회



포천신문 조사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7시 포천동에서 포천동지부 간담회를 개최하고 막강한 책임감 갖고 조사위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포천신문 조사위원회(위원장 김중현)는 지난 7일 오후7시 포천동에서 포천동지부(지부장 김명렬) 간담회를 개최하고 막강한 책임감 갖고 조사위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김중현 조사위원장과 김명렬 포천동지부장 및 조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김중현 조사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가 기자라는 생각으로 각종 제보를 포천신문에 하게되면 우리 사회가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포천동지부 조사위원들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렬 포천동지부장은 “그동안 미려한 힘이나마 열심히 노력했으며 앞으로는 각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포천동지부가 발전하고 포천신문이 크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천동지부 총

무로 선출된 김범삼씨는 “최대한 노력하고 열심히 뛰어 남뚝지 않게 일해 나가겠다”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포천신문이 포천 사회의 정문지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 3천만원 기부

7일 목요일에서 포천시민대중 제작기금으로

포천시 기관단체장들의 모임인 목요일회가 지난 7일 경북대학 우당관 세미나실에서 마련됐다.

포천시청과 각 기관들의 공직 및 협조사항 등의 토의를 위해 두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목요일회는 이날 박운국 포천시장 등 16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박운국 포천시장의 시정설명, 최덕기 포천소방서장 및 박안규 포천우체국장의 기관 협조사항 등의 보고에 이어 목요일회를 퇴임하게 되는 포천경찰서 김영복 서장과 경북대학 이보령 학장에게 재직기념품 증정,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 황성택 지부장의 포천시민대중 건립 기부금 전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황성택 지부장의 포천시민대중 건립 기부금 3천만원에 대한 전달식이 열려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박운국 포천시장은 전달식에서 “황성택 지부장과 농협중앙회의 협조 속에 기부금을 마련해 됐다”고 설명하며 포천시민대중의 제작을 위해 유관기관의 홍보와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최중규 포천시민대중제작추진위원장은 모금과 관련한 공지사

항 설명을 통해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포천시민대중은 청성문화체육공원 위 야외음악당 건설에 위치할 예정이며, 기부금 모금 목표액 5억원에 세우고 오는 8월 10일까지 제1단계(중주조계약 및 종주건축계약)와 10월 20일까지(중도금 지급)을 2단계 모금기간을 두고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14개 읍면동의 추진위원장을 선임하고 있으며 현재 9개치의 위원장을 선임했다. 지금까지의 기부금 모금액은 2천146만원이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지난 7일 경북대학 우당관에서 개최된 목요일회에서 황성택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장이 최중규 포천시민대중제작추진위원에게 기부금 3천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황용선 부시장 부이사관 昇進

포천시 황용선 부시장이 7월 1일자로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1949년 경기도 파주에서 출생한 황 부시장은 마포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73년 대치 시흥군 광명출장소에서 공

직에 입문했으며 99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경기도청 무역진흥과장과 회계과장, 총무과장, 광명군 부이사관 등을 역임하고 2005년 2월 11일부터 포천시 부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다 50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 (주)한국정보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구독료: 월 5000원 / 년 50000원 / 평생 500000원

사훈: 주인의식(主人意識)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傳達)

대표전화 (031)542-1507 발행인 겸 대표이사 최호열  
 편집국 (031)542-1506 편집인 구봉주  
 광고접수 (031)542-9888 편집국장 김영복  
 구독신청 (031)542-9889 인쇄인 김규석  
 F A X (031)541-9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